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8호 【루계 제25617호】 주체106(2017)년 4월 18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각하

나는 수리아독립 7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귀국의 독립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삶을 개척하려는 수리아아랍인민의 투쟁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오늘도 귀국정부와 인민은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온갖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최근 귀국에 대한 미국의 란폭한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한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6(2017)년 4월 17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과 몰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6일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인 에. 에르데네자미얀단장이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몰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몰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대표단 단장인 그리고레 노바크 전국리사회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을 뜻깊게 경축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을 크나큰 격정속에 맞이하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보내주신 2억 1 800만￥의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커다란 감격속에 받아안았습니다.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60년을 헤아리는 올해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실로 163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모두 480억 599만 390￥에 달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전조직, 전동포들이 떨쳐일어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우리의 성스러운 애족애국운동을 크게 고무추동하는 필승의 보검이며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한 한없이 귀중한 생명수로 됩니다.

더우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여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그토록 귀중한 외화를 보내주시였으니 진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사랑, 후대사랑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수령결사옹위전으로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고수해나갈 불같은 결의가 차넘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여나가라고 하신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상과 민족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애국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세상이 얼백번 변한다 해도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뼈속깊이 간직하고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총련중앙으로부터 본회에 이르는 전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학생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을 숭고한 애족애국정신과 풍부한 지식,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닌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둥감으로, 애족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들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더 많은 동포자녀들을 찾아내어 우리 학교에 받아들임으로써 학생대렬을 기어이 늘이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탄압말살책동을 단결의 힘으로 철저히 짓부시고 애국선대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족교육을 기어이 고수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리며 조국통일운동을 더 힘차게 전개해나감으로써 삼천리조국땅우에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과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한해 앞둔 력사적인 올해를 알찬 교육사업성과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믿음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기어이 보답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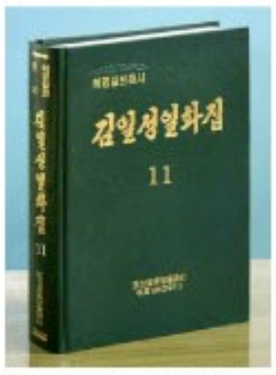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헌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교직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6(2017)년 4월 14일 일본 도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1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11권을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주체37(1948)년 9월부터 주체38(1949)년 7월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직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조선인민군을 믿음직한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던 나날에 아로새기신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에 편집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고 수령님께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제41장 《공화국을 반석같이 다지시여》에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장을 열어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수립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범한 대중을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시기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내용을 담은 《사상전환을 한 시기장》, 《로정객이 받아안은 믿음과 은정》 등의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가 있고 수령님께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신 우리 인민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제42장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1)》에는 일제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운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전하는 《새해벽두에 찾으신 순천땅》, 《자강도신설구상을 펼쳐주시여》를 비롯한 일화들이 서술되여있다.

《열렬한 환영을 받은 첫 공식연설》, 《쓰딸린의 류다른 축배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 쏘련에 대한 력사적인 첫 공식방문의 나날에 남기신 감동적인 일화들은 수령님의 친솔위인상을 전하고있다.

제43장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2)》에는 오로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전하는 《탄부, 광부들에게 차례진 우대권》, 《첫 안건으로 토의된 소금판매문제》, 《보충해주신 〈평양관광〉입장》 등의 일화들이 편집되여있다.

《마늘밭에서 만나신 로인》, 《부흥의 길을 찾은 고저수산합작사》 등 일화들은 갓 창건된 공화국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산골마을과 자그마한 어촌마을까지 찾아주시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내용을 반영하고있다.

제44장 《총대로 공화국의 번영을》에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신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을 보여주는 《적들에게 철추를 내린 내무성보도》, 《회전연 송악산에 오르시여》, 《통쾌한 〈호림부대〉소멸작전》 등의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항일의 전우를 위한 병문안》, 《한밤중에 주신 긴급임무》, 《전 남조선괴뢰군 대대장들이 받아안은 영광》, 《군인들에게 보내주신 모기장》과 같은 일화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정과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도서는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6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6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특출한 인민적풍모를 전하는 19건의 회상실기가 편집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회상실기 《송시 〈광명성찬가〉》에 깃든 숭고한 념원》은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몸소 《광명성찬가》를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보여주고있으며 《한알의 탈알에 비낀 위인의 풍모》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날과 달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소박하고 겸허하신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크나큰 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상실기 《그이께서 안겨주신 증산의 열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여》, 《생산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 《경공업발전의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창성직물공장에 오신 수령님》, 《삼지연지구에 남새온실농장을 꾸려주시려》, 《덕천군인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먹이시려고》, 《사랑넘친 때대에설 때면》에 수록되여있다.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켜주고 축복해주시며 길음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전하는 회상실기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춘, 그 이름 값높이 불러주시며》, 《몸소 집단체조를 보아주시며》, 《칠없던 시절에 받아안은 사랑》, 《따뜻한 그 품에 안겨》도 있다.

회상실기 《대를 이어 안겨사는 어버이품》, 《한 유화창작가가 받아안은 믿음》, 《우리 집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아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키워주시던 나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평범한 미술창작가를 나라와 인민이 아끼는 재사로 내세워주시고 새 집에 이사한 평범한 한 가정을 찾으시여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신 감동적인 사실들이 서술되여있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6권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풍모를 깊이 새겨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수령흠모, 태양칭송의 노래 영원히 울려가리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던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폐막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시내 극장, 회관들에서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예술소조원들이 펼친 공연들은 련일 성황을 이루며 태양절경축분위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공연관람을 통하여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날로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혁명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축전폐막식이 1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축전참가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폐막식에서는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철도예술선전대, 당배천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예술소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예술소조,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예술소조에 특별상이, 18개 단위에 단체상이, 19개 작품과 12개 단체에 안상불상이, 42명에게 창작상이, 59명에게 개인상이 수여되였다.

또한 요술축전에서 높은 기교를 발휘한 7명의 배우들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창작상이 수여되였다.

축전상들에 따르는 상장과 컵들이 수여되였다.

폐막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문화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뜻깊고 의의있는 대정치예술축전이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이 태양칭송의 예술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는 작품창작과 공연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예술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두가 선군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며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수령칭송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축전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문학예술작품창작과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위대한 태양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결처질 인민예술축전을 통하여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의 폐막을 선언하였다.

《조국찬가》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내리워졌다.

이어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이 출연하는 폐막공연이 있었다.

무역짐배 《자력》호 출항식 진행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대경축한 환희와 격정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는 가운데 5 000t급무역짐배 《자력》호가 출항하였다.

무역짐배 《자력》호 출항식이 17일 평남배수리공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내각부총리 임철웅동지와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종관록혜운상의 출항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자력》호가 출항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공장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평남지구를 대선박건조기지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5 000t급 짐배를 건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몸소 배이름도 지어주시였으며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무역짐배 《자력》호를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록해운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알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평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총성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키간 수백종의 제품가공과 각종 동력계통, 주기관, 보조기관들의 제작설치 등을 앞당겨 끝냈으며 항행시운전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말하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련관단위들에서도 필요한 자재들과 중요협동품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배건조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무역짐배 《자력》호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어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해상운수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배건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설비, 기술장비들의 현대화수준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자력자강의 물질기술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마련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해운업발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나감으로써 원쑤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만드시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출항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어 무역짐배 《자력》호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배고동소리높이 먼바다로 떠났다.

무역짐배 《자력》호의 출항은 강원도정신으로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리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해가는 온 나라 인민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정, 혈연의 력사는 영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인류의 대성인, 민족의 태양이 찬란히 솟아오른 백다섯돐이 되였습니다.

조용히 눈길을 돌려 오늘도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러르니 수령님의 그 다정하고 친근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고 금시라도 우리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의 가정은 3대가 어버이수령님의 집전을 받은 최상의 영광을 지닌 복많은 가정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눈굽을 뜨겁게 적시는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로 일관된 고결한 뜻과 열화같은 정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존엄높은 삶을 주시고 애족애국의 참된 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하늘같은 은덕이 너무도 고맙기때문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

세계해외교포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적 없는 령도자와 해외교포들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시고 우리 재일동포들의 삶을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은 진정 천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잊을수 없는 영원한 은인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기에 그 력사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더듬어보고저 합니다.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

저는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번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1990년 4월을 잊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총련중앙 부의장의 중책을 지닌 후 처음으로 되는 조국방문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제가 우리 재일동포들의 축원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미처 다 올리기도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부의장동무로구만, 고맙소라고 하시며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조국이라고, 동무들은 지난날 조국이 없었던탓으로 일본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무들이 자기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기때문에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저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파키 일제의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오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넘어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고 억울하게 죽어가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비참했던 수난자의 운명이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삶에로 도약한 이 극적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12월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에게 하신 교시가 지금도 저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축단 성원들에게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망국노의 설음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가 하는것을 자신께서도 직접 체험해보아서 잘 알고있다고, 자신께서 어린시절부터 나라찾는 길에 나서게 된데는 아마도 이런 생활체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일찌기 우리 민족이 당하는 망국의 고통과 이역살이의 설음을 뼈아프게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백두광야에서 풍찬로숙하시던 항일전의 나날에도 일본땅에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하기에 조국해방으로 재일동포들에게 잃었던 민족의 존엄을 되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듬해 우리 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력사적인 첫 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였습니다.

되새겨보면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서한의 구절구절은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우리 동포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우리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여러 기회에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1952년 12월 재일조선인련락원을 만나신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이 무모한 희생을 당하고있는 엄중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은 남의 나라 혁명에 복무할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되게 되였으며 우리 동포들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한 민족적애국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운동의 본질과 성격이 새롭게 해명되고 주체의 기치를 들고나아가는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이 지구상에 출현한것은 해외교포운동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사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해외동포들의 민족적존엄을 지켜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우리 동포들의 긍지높은 삶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역땅에서도 그토록 긍지높은 우리 동포들의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저는 1967년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해 11월 30일 도꾜의 다이또체육관에서는 1만 2 000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이날 한덕수 총련중앙 의장동지가 11월 25일에 조국에서 진행된 대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7명의 재일동포대표들을 한사람씩 소개할 때 대표들만이 아닌 참가자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굽이쳤고 격정의 파도로 온 대회장이 움직거렸습니다.

저는 동포사회의 이 경이적인 현실을 체험한 동시대인으로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느꼈습니다.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여 활동하는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입니까.

총련과 산하단체들은 세계평화리사회, 세계민주청년련맹,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있으며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세계교직원조합련맹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들에 우리 동포들이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떨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총련과 우리 재일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속에 1986년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한덕수의장동지일행이 총련결성이후 처음으로 쏘련(당시)을 친선방문하였습니다.

일행은 우즈베끼스딴가맹공화국의 최고쏘베트를 의례방문한데 이어 총련결성일인 5월 25일 따슈켄트 TV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총련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질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서의 우리 총련의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고 재일동포들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존엄있고 당당하게 살아올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력사는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의 력사이며 우리 동포들이 지닌 최상의 존엄은 그 위대한 력사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게 됩니다.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력사

올해의 4월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울려줍니다.

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의 4월이기때문입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성인이시여서 시간의 흐름마저도 그 고마움과 위대함을 더해주는가 봅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해 말할 때 먼저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은 60년전이지만 수령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이전부터 뜨거운 사랑의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싶어하는 1세동포들의 심정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12월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이 해방직후 일본 도처에 국어강습소, 청년학원과 같은것을 내오고 자녀교육사업을 시작한데 대하여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아동들을 우리 말과 글로 교육하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주독립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총련이 결성된 뜻깊은 해에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줄것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워만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1957년에 조국에서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과제를 수행하자면 많은 자금이 요구되였으나 전쟁의 후과를 다 가시지 못한 나라의 경제형편은 어려웠고 계획과제에 비해볼 때 백수십억원의 자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인 1957년 1월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예산의 세부항목을 하나하나 따져가시며 마지막조항까지 다 검토하시고나서 보고를 제기한 일군에게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항목은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재일동포자녀교육비를 예견하였으나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림시외화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려 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역땅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민족교육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는 재정난이였습니다.

원래 교육사업자체가 많은 자금이 드는 사업인데다가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끼니도 에우기 어려운 동포들이 많았고 그런 속에서도 분전과 가산을 털고 메장감까지 내여 돈을 마련하느라고 했지만 재일조선학령아동들을 다 공부시킬 자금을 해결한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동포들의 고충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고,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예산에 새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해 4월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1억 2 109만 9 086¥의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와닿았을 때 온 동포사회는 감격과 눈물의 바다로 되였으며 량심적인 일본인사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족교육을 받아온 세대로서 《김일성원수님 만세!》, 《조국만세!》를 부르며 교직원들과 동포들 모두가 환희에 넘쳤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당시 《조선민보》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일본 방방곡곡 동포가 사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 어느 마당에로 가나 조국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로 광활한 희망과 기쁨에 들끓는 장면에 부딪친다. 둘이 만나나 셋이 앉으나 동포가 모인 장소라면 이 화제로 꽃이 핀다.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감격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저도모르게 모두들은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말들을 터친다.》

세계해외교포사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교육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총련의 우리 학교들에 민족악기와 동식물표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랑의 선물들도 보내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오 형 진

바로 이 사랑속에서 유치반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교육체계를 갖춘 민족교육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지금까지 11만여명의 동포자녀들이 우리 민족교육을 받았고 그중 1만 7 000여명이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81년 6월 6일과 7일 조선대학교창립 25돐을 맞으며 기념행사들이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 각계 인사들과 34개국 주일 외국대사관원들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1 000여명이나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명예학장인 한덕수의장동지가 연설한 후 세계 여러 나라 단체, 대학, 연구기관들과 일본의 국회의원, 학자, 문화인들이 보내온 수많은 축하전문이 소개되였으며 학생들의 예술공연 《아, 25돐, 영광의 로정이여!》가 상연되였는데 관람자들모두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렇듯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때마다 우리 동포들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사랑의 생명수를 주시고 총련의 민족교육을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북받치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군 합니다.

하기에 저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재일동포들을 뗄래야 뗄수 없는 친혈육, 한식솔로 굳게 맺어준 피줄기라고 말합니다.

정으로 시작되고 그 힘으로 펼쳐진 위대한 력사의 나날들을 어찌 이 한편의 글에 다 담을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그릇의 밥을 나누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정속에서 마침내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격찬한 귀국의 배길이 열리였습니다.

대다수가 고향을 남북에 두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정에 끌려 공화국에로 집단귀국한 이 력사적인 사변이야말로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품을 찾아간 민족의 대이동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친혈육의 따뜻한 정으로 극진히 위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도 실현되여 교육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 상공인, 문예인, 체육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마음껏 오가게 되였으며 이역땅에서도 참된 애국의 넋을 지니고 총련과 동포사회발전, 나라의 통일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은 한평생 우리 동포들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며 정을 다해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뜨거운 정의 화신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십니다.

일편단심으로 따른 충정의 력사

정은 넋이고 힘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재일동포들 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정, 바로 그속에 우리 동포들이 진정한 조국을 알게 하고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애족애국의 참된 넋을 지니고 신념의 길을 걸어올수 있게 한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역살이, 망국살이의 피눈물나는 그 세월속에서도 백두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의 첫 기슭에서 받아안은 력사적인 서한에서 틀어주고 위해주는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정을 새기며 수령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벌리였습니다.

청소한 우리 조국앞에 전쟁의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에도 동포들은 조국을 지키고저 있는 힘껏 싸웠습니다.

당시 저는 12살 소년이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조국방위대 등 여러 조직들을 뭇고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 미제의 살륙무기수송저지투쟁, 평화서명운동, 구국기금운동을 비롯한 조국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뜨거운 정은 동포들의 마음속에 애국충정의 일편단심을 키워주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자자구구 심장에 새겼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00번읽기운동도 힘있게 벌렸으며 이 나날에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제계, 령도제계를 튼튼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전진하는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발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비약할 때 《우리도 천리마를 탄 기세로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 떨쳐나서자!》라고 결의다지며 모범분회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분회들을 모범분회로 만들었고 련이어 애국영예기쟁취운동으로 심화시켜 총련조직을 강위력한 애국대오로 꾸려나간 우리 동포들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인가를 획득하고 민족교육의 맥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외국인학교법안》을 여러번이나 제안으로 만들었으며 기업권과 생활권 등 우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고 지켜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핵전쟁도발반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요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 재일본조선인총진(1975년 7~8월), 전민족대단결실현,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청년학생들의 대행진(1993년 8월)을 비롯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매 년대마다 각계각층 동포들을 묶어세워 대중적인 통일애국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충정의 자욱을 새겨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탐아 불러주신 애국자라는 부름이 너무도 고마와 동포교육자들은 한생을 묵묵히 교단에 바쳐 수많은 새 세대들을 억세게 키워냈고 진보적상공인, 애국적상공인이라는 고귀한 믿음을 억대의 재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들은 조국에 일떠서는 공장과 거리, 병원 등 이르는 곳마다에 애국의 자욱을 새기였으며 노래를 부르고 과학을 연구해도 보답의 일념을 안고 수령님을 따른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럴수록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더 뜨거워졌습니다.

일찍부터 어버이수령님께 충정다하는것을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으로 제시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못내 기뻐하시며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하시며 나라가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재일동포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사랑의 위문전문과 위문금을 보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뜨거운 동포애의 정과 믿음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총련은 애족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자랑떨치게 되였으며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사나운 돌풍속에서도 일편단심으로 보답과 충정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올수 있었습니다.

이 혈연의 력사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본태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바로 그속에 우리 총련의 힘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국충정의 본태를 빛내여

오늘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앙양된 기세로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떨쳐나섰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정초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동지에게 보내주신 축전에서 새해 201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전환의 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전에서 **《새해에 총련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진 구절구절에서 저는 다시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정을 온넋으로 느끼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열린 총련지부일군대회에 력사적인 축전을 보내주시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어린 사랑의 력사도 변함없이 이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따뜻이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실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정을 느낀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화국창건 65돐을 며칠 앞두었던 2013년 9월 7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너도나도 기쁨에 설레이던 그때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였습니다.

글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더욱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축원의 인사를 먼저 올려야 마땅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면서 주체의 조국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품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한식솔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을 전달받던 날 장내는 끓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정이 넘쳐나는 그 말씀에서 우리들을 한전호속의 전우, 한식솔이라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어려와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하기에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그날 자애로운 친어버이사랑과 분에 넘치는 말씀으로 공화국의 65년 력사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의 력사도 깊이 아로새겨주시고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저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감사편지를 올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과업으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고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갈 불같은 결의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더 우심해지고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을 과시하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합니다.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일편단심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애국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여 뜻깊은 올해를 위인칭송의 해로 장식하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지향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비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는 영원할것입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저는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일본 도꾜에서

주체106(2017)년 4월 13일

(필자는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예술공연 《오직 한마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송가가 누리를 진감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예술공연 《오직 한마음》이 16일 통라인민유원지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만리마대진군에서 기적적성과들을 이룩해가는 긍지드높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환희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박태성동지, 김능오동지, 조연준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내각부총리들, 태양절경축행사 대표들이 공연을 보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담은 서장 합창과 무용 《오직 한마음》으로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우리 수령님》, 녀성2중창과 녀성합창 《만경대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포전길 걸을 때면》,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녀성4중창과 합창과 무용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모래그림과 요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만리를 헤치시며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는 력사의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해만가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북변 두메산골로부터 서해의 작은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전설같은 애민헌신의 서사시를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남성2중창과 합창 《우리는 빈리에서 시작하였네》, 무용 《용해공의 한마음》, 손풍금과 남성4중창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의 큰업한 복풍우를 헤치며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려온 우리 인민이기에 뜻깊은 4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송가는 더더욱 뜨겁고 절절하였다.

녀성3중창과 합창 《사회주의락원일세》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되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이 마련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공연무대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설화와 녀성8중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이 련이어 올랐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강력제일주의로 강성번영할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반영한 장새남중주와 민족타악기제주 《사회주의 지키세》, 무용 《자강력의 기수들》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이채롭게 떠였다.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며 4월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축포의 꽃보라가 터져올랐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시고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오르고 공연장소는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천만군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공연은 종장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주체조선의 성스러운 력사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예술공연 《오직 한마음》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과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흥남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5일 흥남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함흥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빠나마국적선박 《다데든화》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을 맞으며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인류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한평생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과 같으신분은 일찌기 없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김일성주석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탁월한 수령들을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민족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오를수 있었으며 오늘 세계는 날로 륭성번영하는 주체조선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영웅적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라레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각하

나는 짐바브웨독립 3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4월 12일 평 양

조선로동당과 메히꼬로동당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조선로동당과 메히꼬로동당사이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7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리수용동지와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가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에 넘쳐나는 복받은 인민의 환희

려명거리에서 새집들이 시작,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세대 주민들 제일먼저 입사

어머니당의 온혜로운 손길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날로 활짝 꽃펴나고있는 속에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에 복받은 인민의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려명거리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에게 제일먼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펼치며 려명거리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였다.

17일 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이 새 살림집들에 제일먼저 입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듯, 땅에서 솟은듯 희한한 장관을 펼친 사회주의리상거리의 70층 초고층살림집구내로 이사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마냥 록색과 흰색타일로 보기 좋게 장식되고 무변광대한 만리대공을 찌를듯이 아득히 솟구쳐오른 초고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공공건물들, 봉사시설들을 바라보며 교원, 연구사들과 가족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땅에 끝없는 애민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청년대학생들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당의 온정어린 새 집들에 입사하는 선생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살림집들에 들어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랑의 금방석, 행복의 보금자리를 거듭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7층 3호에서 살게 된 최상의 영광을 지닌 박사, 부교수인 교원 마성수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에 교육이라는 말이 생겨 수수천년세월이 흘렀어도 내 나라, 내 조국처럼 교육이라는 그 의미가 그처럼 값높고 교육자라는 그 부름이 숭엄히 빛나는 그런 시대, 그런 력사가 있었는가.

교육자들을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불러주시고 세계에 존엄떨치는 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뒤에는 교육이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울려온다.

우리 룡남산의 교육자들을 위해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초고층살림집의 해란다에서 박사, 부교수인 교원 림고근은 안해 부교수인 연구사 최선애와 함께 아름다운 려명거리의 전경을 감동속에 바라보며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눈을 뜨고도 꿈을 꾸는것 같다.

절세위인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만 해도 쌓으면 하늘에 닿으련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한량없는 은정을 돌려주시니 이처럼 복받은 교원, 연구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매 방의 가구, 비품 하나하나에도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하늘같은 이 은덕에 더 많은 사업성과로 보답해갈 일념뿐이다.

궁궐같은 새 집에 살림을 편 교수, 박사인 연구사 박렬은 우리 가정이 받아안은 오늘의 이 행복은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롱락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우리 가족은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하며 어린애마냥 어서 가서 새 집을 구경하자고 하는 자식들과 기쁨에 겨워 눈시울을 적시는 안해를 보며 생각이 깊어졌다.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연구성과도 내놓은것이 없는 평범한 연구사에게 분에 넘치는 혜택을 남먼저 안겨준 어머니당의 은덕에 눈물만 앞설뿐이다.

진정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당의 품이 있다는것이 나만이 아닌 온 나라 과학자들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새겨진 신념의 기둥이다.

새 세대 교육자부부인 김광혁과 김송이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받들려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상봉에 우리 룡남산의 아들딸들이 제일먼저 오른것만 같다.

오늘의 이 행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특전이고 특혜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당의 은정속에 온 나라의 교육자들이 받아안게 될 행복, 누리게 될 사회주의문명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사회주의리상이 꽃펴난 황홀한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된 철거세대 주민들도 려명거리건설에 쏟은 한자루 바치지 못한 자기들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살림집을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하늘같은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덩실한 4칸짜리 살림집에 입사한 전쟁로병 유근호의 안해 누성심은 격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남편의 이름이 씌여진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보고 또 보았다.

당에서는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혁명선배로 내세우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전쟁로병으로서의 값높은 영예와 삶을 더욱 빛내이라고 종전에 살던 집과는 대비도 안될 멋있고 궁궐같은 새 집을 선참으로 안겨주었으니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남편의 마음까지 합쳐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식 사회주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평양식료일용기술대학 교원 박송남과 그의 안해 리영혜도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일생을 일해 번 돈으로도 사지 못할 이런 주택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받은데 대해 친척, 친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52-111호동 6층 3호에 보금자리를 편 박호영, 김혜심부부는 살림방마다에 친어버이의 정과 고마운 우리 제도의 혜택이 따스히 스며있어 차마 집문턱을 선뜻 넘어설수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려명거리에 입사하는 모든 가정들의 기쁨과 환희가 저 하늘끝에 닿았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진정에 겨운 인민의 목소리는 52-117호동 2층 2호에 입사한 최병성가정에서도 울려나왔다.

모든 생활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살림방이며 가정주부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잘 꾸려진 부엌의 여기저기를 쓸어보는 안해 표승옥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최병성과 그의 가족은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고 하면서 받아안은 이 영광과 행복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조국의 무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떠올린 려명거리의 새 집들에 입사한 그 어느 집의 문을 열어보아도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는 복받은 인민이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 진행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협의회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인 리창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모스타와 자말 하이더 방글라데슈자리야당 전국집행리사회 총비서, 쏭코르 랍 쉬레스타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김정숙위원장의 축하말언이 있었다.

그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을 인류공동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협의회가 진보적인류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이번 축전을 국제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진행하는데 훌륭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더모트 하드슨 유럽지역준비위원회 공동서기장은 세계적판도에서 2017년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들이 련이어 결성되고 준비위원회들의 주최하에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정당,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올해를 명실공히 백두산위인칭송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조선준비위원회 서기장인 박정일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나라에서 진보적인류의 념원대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흠모하는 칭송비건립을 비롯한 축전보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제준비위원회의 호소문과 공보문에 호응하여 축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지지성원이 계속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강조하고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진보적인류의 대정치축전으로 의의있게 진행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활동방향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협의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외국손님들 만경대방문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일본 교또대표단

세에드 메흐디 쏠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야스이 쯔또무 문화, 학술, 시민교류를 촉진하는 일조우호교또네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일본 교또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성지를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은 주체사상탑,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였으며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일본 교또대표단은 문수물놀이장,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자랑찬 행로

창립 70돐을 맞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고

끝없는 사랑의 그 자욱자욱 못 잊습니다!

대지우에 짙어가는 봄빛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샘솟는 4월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해방전 《평양제2감옥》으로 불리우던 수난많은 일터가 70년의 력사와 더불어 로동계급의 시대정신이 나래친 일터, 최고의 문명이 창조된 일터로 천지개벽되였으니 그 세월의 갈피갈피를 번져볼수록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뜨겁게 어려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하늘같은 사랑과 정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잠 못 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주체36(1947)년 4월 18일, 그날은 피눈물로 얼레를 적시던 평양제사공장(당시)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 공장의 참다운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짚은 뜻깊은 날이였다.

며칠전 공장을 찾으시였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생산문제에 앞서 로동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부터 료해하시였다.

비좁은 작업현장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는 조사공처녀들의 고충을 아픈 마음으로 헤아려보시고 녀성로동자들이 생활하는 합숙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일군들에게 거듭 당부하시면서 후방사업과 위생문화시설을 갖추어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고 친부모도 줄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체험한 공장로동자들의 증산열의는 하늘에 닿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다섯달후인 그해 9월말에 해방후 처음으로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기록을 돌파하는 위훈을 창조한 공장로동계급.

70년전 그날은 우리 수령님께서 실음과 피눈물속에 살아오며 얼어붙었던 이곳 녀성로동자들의 가슴가슴을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녹여주신 력사의 봄날이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품속에서 공장은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힘있는 집단으로 성장의 보폭을 활짝활짝 내짚었다.

천리마운동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던 때였다. 평양시에서 처음으로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쟁취한 길화실작업반의 뒤를 이어 공장의 모든 작업반들이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린 속에 공장적으로 천리마작업반수는 나날이 늘어났다.

공장로동계급은 충천한 그 기세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쥐여주신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천리마공장칭호쟁취운동에 궐기해나섰다.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천리마기수들을 찾아 또다시 공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생산조건문제부터 관심하시였다. 전후에 일부 건물들을 복구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생산건물이 락후하고 로동자들의 작업조건이 불비하다는것을 료해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런줄 알았더라면 미리 나와보았겠는데 좀 늦었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공장을 번듯하게 새로 지어주자고 교시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강재와 세멘트 등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은 나라의 경제형편을 타개하며 모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자, 건설비는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계산합시다, 로동자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준 다음에 계산합시다라고 절절한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과 제사공장로동계급은 이렇듯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친혈육의 사랑과 정으로 이어졌다.

언제나 당과 수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며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이곳 로동계급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주체98(2009)년 1월에 공장을 네번째로 찾아주시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때해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훌륭한 문화적환경을 조성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견하시여 떠나시여서도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 대를 이어 전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부모의 사랑과 정은 이곳 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천백배해주는 기적창조의 자양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자라난 공장로동계급에게 대를 이어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온 나라 인민을 울렸던가.

주체105(2016)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국사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70일전투기간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수행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아온 공장이여서 그런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일본새가 확실히 다르다고 높이 치하하실 때 공장일군들은 해방후의 그 나날로부터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건설되였을 때 이 공장 합숙생들이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공장인것만큼 합숙건설을 자신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뜻이 구내의 풋풋마다에 아로새겨져 그야말로 천지개벽된 공장의 오늘이 있는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궁궐같은 사랑의 집에 보금자리를 편 처녀들은 물론이고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하늘같은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심장깊이 되새기며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맡겨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기적과 위훈창조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되여있는 공장의 70년 발전사를 통하여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 진리가 있다.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수령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는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굳건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할수록 더욱 질풍노도쳐 전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자력자강으로 높여가는 국산화비중

국산화비중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공장의 현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장의 생산설비들은 물론 그 기료품들은 하나하나가 특수한 재질과 정밀도를 요구하는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많은 경우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국산화열풍속에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공장일군들은 기료품들의 국산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기술일군들은 200㎛의 미세한 구멍가공때문에 종전에는 그 제작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집서키를 CO_2레이자빛에 의한 구멍가공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제작하고야말았다. 년간소요량이 수만개나 되는 이 부분품을 지금 공장에서는 자체로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이 과정에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배심이 든든해졌다. 그 기세로 더욱 분발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재질분제를 해결하여 재조기마찰판도 완성하였고 재조기얼레, 자동조사기삭시발통, 삭시발통치차, 급전기물진동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료품들을 국산화하였다.

생활문화가 활짝 꽃핀 일터

공장구내를 따라 걸느라면 생산기업소라는 느낌보다도 휴양소에 온것만 같은 감흥에 잠기게 된다. 수십종의 사철푸른나무들과 여러가지 과일나무, 꽃관목들이 우거져 구내는 마치 식물원을 방불케 한다. 탐쟁이덩굴로 뒤덮인 건물의 주변에는 새 품종의 잔디가 푸른 주단을 펼치고있고 그속에 로동자들의 즐거운 휴식터가 아담하게 꾸려져있다.

양어장에서는 팔뚝같은 초어떼 잉어, 기념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닐고 양어못을 가로질러간 반달형의 다리중심에 휴식각까지 형성되여있어 그 풍치는 더없이 아름답다.

종업원들을 위한 모든 문화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진달래원에 가보면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는 종업원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수 있다.

올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로동당시대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희한하게 일떠선 로동자합숙에서 합숙생들은 세상이 무럼도록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고있다.

공장을 돌아볼수록 훌륭한 로동생활조건보장이자 높은 생산실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로력절약형공장으로의 큰걸음

지난해 6월 공장에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의 작전밑에 임전공정의 무인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공장기술력량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자동수감장치들이 설치된 고치자동임전장치를 짧은 기간에 도입하였다. 임전공정을 무인화함으로써 수십℃의 증기속에서 작업하던 10여명의 로력이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공장에서는 고치걸면제거기와 고치선별장치를 새롭게 개조하여 하나로 흐름선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공정이 확립되면 종전에 6대의 기대와 근 20명의 로력이 필요하던 고치걸면제거 및 선별작업을 3대의 기대에서 3명의 로력으로도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반면에 생산성은 종전에 비해 2배나 높아지게 된다. 지금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이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밀고나가고있다.

당에서 일단 과업을 주면 즉시 접수하고 즉시 집행해나가는 이런 기풍이 바로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의 자랑찬 오늘을 펼쳐놓은것이다.

심학철

천리마의 전통은 오늘도 계승된다

1959년에 평양시에서 처음으로 천리마작업반칭호 쟁취, 1965년에는 평양시에서 처음으로 천리마공장칭호를 수여받음.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빛내이며 공장로동계급이 수놓은 이 혁혁한 위훈은 70년 연혁사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져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천리마시대!

이제는 멀리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많은것이 변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천리마시대의 그 위훈은 결코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않다. 격동적인 시대를 탄생시킨 천리마의 전통을 오늘도 굿굿이 이어가며 누구나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선구자가 될 애국충정의 각오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자는 우리 당의 호소에 천리마공장칭호쟁취로 화답해나섰던 그때처럼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도 높은 비단실증산성과로 수령의 권위, 당정책을 결사보위할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공장 당, 행정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침입식정치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천리마시대를 빛내인 전세대들이 어떤 정신으로 자기 수령을 받들었고 당의 권위를 지켰는가를 실감있는 사실자료들을 리용하여 길이길이 새겨주고있다.

사상전의 열풍속에 공장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자존심은 더욱 강해지고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선구자, 선구자집단이 되려는 증산경쟁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언제나 천리마시대를 안고 사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길이 깊이 새겨져있다. 온 공장이 전방이 되고 모든 종업원들이 결사대원이 되여 오리오리 비단실을 뽑고뽑아도 성차지 않아하며 기적창조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70일전투.

전세대들이 빛내인 천리마의 위대한 전통을 자랑한 증산실적으로 이어가려는 공장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에 의해 공장력사가 알지 못하는 새 기록, 새 기준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5일만에 14명의 조사공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25살의 꽃나이처녀가 정량 60추로부터 200추를 말아 하루계획을 300%이상 넘쳐 수행하여 첫 년간계획완수자가 되였다.

전투기간 공장은 일생산량을 지난 시기의 2.2배로 높여 상반년계획을 당앞에 결의한 날자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수행하여 굴지의 석탄생산기지, 대동력기지들과 나란히 총정의 70일전투전형단위의 값높은 영예를 떨치였다.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이 나는법이다.

어제날의 천리마의 전통을 지난해 70일전투, 200일전투를 통해 빛내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매일 계획이 평균 150%이상 넘쳐 수행되여 상반년계획이 석달 앞당겨 수행되였으며 4월 15일현재 6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천리마의 전통을 이어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연혁사의 갈피에 또다시 시대를 빛내이는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길것이다.

본사기자 정경철

인민이 좋아하며 즐겨찾는 우리 이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과 비단솜으로 여러가지 이불을 팡팡 생산한다는 기쁜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진지 불과 석달이 지났다.

그 나날 어디서나 우리 이불이라 부르며 즐겨찾는 인민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1월, 새로 꾸려진 이불생산기지를 기쁜 마음으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생산자들에게 간곡하게 남기신 당부가 있다.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좋은 이불을 팡팡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날의 말씀.

이불작업반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간곡한 당부를 늘 심장에 새기고 하나하나의 제품마다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지금 이들은 프로그람에 의해 조종되는 자수기의 기술적특성에 정통하고 무늬와 형태를 다종화, 다양화하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새라새로운 무늬의 제품들을 련속 개발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진행된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형태와 색갈이 다종다양하고 흠잡을데 없는 공장의 이불제품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공장에서는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수요자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이불을 생산하고있는데 그 호평은 실로 대단하다.

주문자들과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 이불생산공정은 그야말로 만부하를 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이후 이불생산량이 일평균 2배이상으로 장성한것만 보아도 우리 이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이불이라는 부름은 앞으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더욱 친숙해질것이다.

공장의 발전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날을 따라 증산의 봉음을 높이 울려가는 이불생산기지, 이 자랑찬 현실을 놓고도 당의 경공업정책을 대하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간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김정숙평양제사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김정숙평양제사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7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우리 혁명의 대고조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고있는 믿음직한 경공업생산기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6(1947)년 4월 18일 공장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공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여러차례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뜻깊은 공장의 명칭을 친필로 새겨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장로동계급이 천리마의 전통을 이어 만리마시대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고무해주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피줄로 간직하고 불타는 애국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당의 경공업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연혁사를 새겨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공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자이크영상작품들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회관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생산현장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형을 보여주는 직관판들을 게시하여 온 공장이 수령의 유훈관철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제사공장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고속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수많은 부속품, 기료품들을 국산화하였으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본보기로 꾸리고 공장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기적의 2016년에 공장로동계급은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철야전군을 벌려 6년분, 4년분계획완수자, 로력혁신자의 자랑을 떨치였으며 세계적수준의 고품질명주실을 생산하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당에서 내세워준 만리마시대 전형단위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고 2중3대혁명붉은기와 모범기술혁신공장, 모범체육공장칭호를 쟁취하였으며 로력영웅들과 많은 당 및 국가표창수훈자들을 배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언제나 당중앙뜨락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백옥같은 애국충정으로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앞장에서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공헌하여온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 지배인 김명환의 기념보고에 이어 기술부기사장 최인철, 직장장 림명철, 혁명사적교양실 실장 리혜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나라의 믿음직한 비단실생산기지, 경공업부문의 중추공장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고 가까운 앞날에 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비단실생산을 최고생산년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질좋은 이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로동자합숙에 대한 관리운영을 더욱 짜고들어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세세년년 전해가며 정양소와 진달래원운영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세대 천리마기수들의 이악하고 깐진 일본새를 따라배워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여 당앞에 결의한대로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을 다발적으로, 현발적으로 창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 진행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이 17일에 있었다.

모임에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리길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의 신봉자된 긍지를 안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친선림과 단결림으로 나뉘여 다채로운 체육유희경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타이에 가는 우리 나라 대표단 출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타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개발촉진을 위한 정세협력 및 통합에 관한 고위급대화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그리고페 노바크 전국리사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몰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대표단과 에. 에르데네자미안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이 17일 귀국하였다.

여러 나라 당대표단 귀국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철,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각각 전송하였다.

한편 이날 다고 노름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안토니오 라씨 이딸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일행이 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떠나갔다

요카미 경이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17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길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17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3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24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5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6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7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8일과 28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세월》호대참사를 빚어낸 희세의 살인악마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상보

남조선에서 세계를 경악시킨 《세월》호대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세월이 흘렀다.

이날을 맞으며 사고해역이 바라보이는 팽목항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는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원한과 저주의 상징이 된 《세월》호가 력사의 진실을 고발하는 증견자가 되여 륙지에 인양된것을 계기로 유가족들과 각계층의 분노는 더욱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사회 각계는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하면서 역도년을 감옥에 처넣은 그 힘으로 세기적대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며 다시금 투쟁의 초불을 들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민심의 격앙된 분노에 당황망조하여 《〈세월〉호인양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박근혜와 〈세월〉호를 련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배는 침몰해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법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세월》호대참사 3년을 맞으며 인두겁을 쓴 야만의 무리, 천하의 패륜아들인 박근혜역도와 괴뢰보수패당의 추악성과 비렬성, 도덕적저렬성을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인간백정들이 빚어낸 특대형살인참극

인간의 탈을 쓰고 온갖 악덕만을 일삼는 희세의 인간백정, 천하의 살인귀무리가 다름아닌 박근혜역도와 괴뢰보수패당이다.

《세월》호대참사는 그 진면모를 낱낱이 보여주는 산 고발장이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남조선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470여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려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가 침몰된 곳은 바다기슭으로부터 3㎞ 떨어진 수역이였다.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세월》호는 1시간이 지나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뒤집힌채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6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 172명뿐이고 나머지 300여명은 배와 함께 바다밑에 수장되여버렸다.

인류사에는 수많은 참사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세월》호사건과 같이 만사람을 아연실색케 한 참변은 일찌기 없었다.

사고가 망망대해에서 일어난것도 아니며 여러 시간을 경과한것으로 하여 얼마든지 생명들을 구원할수 있었지만 애처로운 울부짖음만 남기고 통채로 바다속에 빠져버린 《세월》호의 운명을 두고 오늘도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혹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과연 사고는 우발적인것이였으며 생때같은 목숨을 수백명이나 졸지에 앗아간 그 가슴저린 비극은 피할수 없는것이였는가.

원래 《세월》호로 말하면 업체가 외국에서 근 20년이나 쓰다가 버린 파철이나 다름없는것을 헐값으로 사들여온 중고품이였다.

여기에 제대로 수리정비도 하지 않고 리윤추구에만 몰두하면서 객실과 화물칸을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하게 늘임으로써 배의 안전성과 균형성이 심히 파괴되였다.

그러나 북침전쟁열에 들뜬 괴뢰보수당국은 제주도에 새로운 해군기지건설놀음을 벌려놓고 이곳으로 향하는 모든 배들에 공사용자재를 싣도록 강박하였으며 그 덧짐이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를 《세월》호에도 무겁게 실리게 되였다.

돈벌이에 피눈이 된 업주들은 여기에 정량의 3배를 초과하는 승객들과 화물들을 싣고 떠난 배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주는 평형수를 기준량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이라는 작자들 또한 1년 혹은 6개월 계약을 맺고 림시고용된자들로서 항로조차 변변히 파악할줄 모르는 무자격자들이였다고 한다.

괴뢰패당은 이렇듯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세월》호를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출항을 허용해주고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떠나보냈다.

결국 층층이 쌓아올린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여윈 노새처럼 기우뚱거리며 바다물을 헤가르던 《세월》호는 그 중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통채로 뒤집혀지게 되였다.

참사가 일어난 후 괴뢰패당이 놀아댄 추태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것이였으며 당국의 대응이란 엉망진창이였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갑판우에 있던 학생들까지 모두 선실에 가두어놓고는 《가만히 있으라.》,《이동하지 말라.》는 방송나발을 불어대여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선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조선이 오면 선참으로 옮겨탈수 있는 곳으로 빠져나갔다.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벌려야 하는것이 해양경찰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초기구조를 맡은 목포해양경찰은 21척의 함정을 가지고있었다고 하지만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겨우 4척밖에 가동할수 없는 형편이였으며 그중 한척이 사고현장에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승객들을 구원한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만 처싣고 달아뺐다.

당시 재난관리의 총책이라고 하는 괴뢰안전행정부 장관이라는자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고 하면서 꼬리를 사렸으며 청와대 안보실 실장이란자는 저들은 《재난대책사령탑》이 아니라며 쏙 빠져나갔다.

사고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였다는 119구조대는 현장에 오는 괴뢰우두머리들을 맞아들이느라 도로까지 차단하여 구조작업을 오히려 방해하였는가 하면 구조인원들을 태우고가던 직승기는 전라남도청의 고위인물들을 태우라는 지시를 받고 항로를 바꾸어 딴데로 날아가버렸다.

보다 못해 민간인잠수부들이 승객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괴뢰해양경찰은 저들과 뒤돈을 대고 계약한 민간구조업체 《언딘》소속 인원들만 배에 접근시키고 그외 인원들은 차단해버렸다.

《세월》호가 바라보이는 팽목항으로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치한치 바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배를 보며 안타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이것이 무슨 나라인가.》,《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라며 피의 곡성을 터칠 때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는 더러운 몸뚱아리를 치닥질하며 있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박근혜가 당시 7시간행적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니 뭐니 하고 뻔쳐대면서 아닌보살하고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원래 인정미라고는 꼬물만큼도 없고 매몰스럽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구조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을뿐아니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세월》호가 침몰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박근혜는 이미전에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미용사를 청와대에 불러들이고 태연자약하게 골방에 들어앉아 머리치장을 하였으며 극상내린 지시라는것이 상황파악을 할수 있게 침몰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보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구조활동을 해야 할 해양경찰이 어처구니없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침몰하는 《세월》호를 찍으며 돌아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장, 차관이 방문했을 때 브리핑과 의전을 어떻게 할지가 재난대응의 초점이다. 참사당일 오전 9시 15분부터 10시 44분까지 5차례 진행된 해경과 청와대통화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그때 청와대가 해경에 거듭 요구한것이 〈세월〉호참사영상이였다. 대통령, 고위공직자에게 가져다줄 자료부터 요구한것이다.》라고 남조선언론들이 일제히 비난한것은 우연치 않다.

애어린 학생들이 선실안에 갇혀 손톱이 빠지도록 창문을 긁어대고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며 흡혈귀 박근혜가 어떤 살기띤 눈초리를 던졌겠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명약관화하게 알수 있는 일이다.

이후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청와대 《환관》들의 보고를 받고 급기야 전용미용사를 다시 불러 일부러 머리를 흐트러지게 만든 상태에서 허접지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박근혜년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찾기 힘든가.》라는 왕청같은 질문을 하여 《대통령이 초보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있다.》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목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명색이 집권자라는자가 이꼴이니 그 수하졸개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300여명의 승객들이 배와 함께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된 끔찍한 참변은 삽시에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피해자가족들의 눈물과 곡성이 하늘땅에 차넘치고있을 때 실종자명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댔는가 하면 식당에 몰려가 술판, 먹자판을 벌려놓고 질질거리면서 흥에 겨워 저가락으로 식탁까지 두들겨대며 《〈세월〉호자작시》까지 읊어대는 추태를 부리였다.

뒤늦게 구조현장에 내려간 괴뢰국무총리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고급호텔의 온돌방에 자빠져 태평스레 코를 골며 잠을 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괴뢰교육부 장관이라는자는 위로는커녕 옆에서 울고불고하건, 기절하건 상관없이 팔걸이의자에 앉아 즉석국수를 게걸스럽게 처먹었으며 그것이 여론화되자 닭알을 넣어 먹은것도 아니라느니, 팔걸이의자가 문제라느니 하고 변명하면서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추태를 부렸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고 백성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런 살인악마들에게 미련을 품고 애어린 생명들과 피를 나눈 혈육들이 구원되기를 바랐으니 그 결말이 참혹하게 끝날수밖에 없은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였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사회 각계는 《〈가만있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안내방송을 믿고있다가 고스란히 죽어갔다.》,《박근혜에 대한 미련이 이런 참극을 불렀다. 억장지성이 무너질 일이다.》라며 괴뢰보수당국의 살인만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이렇듯 《세월》호대참사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였다.

박근혜역도년을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인재였으며 희세의 인간백정들이 빚어낸 특대형살인참극이였다.

살인범죄의 진상을 가리워 보려는 비렬한 망동

살인마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하기에 어떻게 하나 범죄행위의 진상을 가리워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는것은 살인자의 본색이다.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추악한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년과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은 천하무도하기 이를데 없는것이였다.

박근혜와 수하졸개들은 저들이 저지른 인면수심의 패륜패덕행위에로 향한 비난여론이 류포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훼방을 놓고 폭압의 칼날을 휘둘러댔다.

《KBS》방송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박근혜의 지령에 따라 목이 달아났으며 많은 언론사들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까지 강요당하였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를 비롯한 《환관》무리들을 내세워 《세월》호참사당일 청와대와 주고받은 교신기록이 있는 해양경찰의 콤퓨터봉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한것도 이 시기에 있은 일이다.

한편 괴뢰패당은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사고현장방문》이니,《구조활동독려》니,《실종자가족위로》니 하며 박근혜를 치켜세웠는가 하면 한 로파를 피해자가족으로 둔갑시키고 분향소에 온 박근혜가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찍어 언론에 광고하는 조문연출사진까지 조작하였다.

한편 역도년은 대학살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책임을 전부 아래졸개들에게 넘겨씌웠다.

이에 따라 괴뢰보수패당은 대형참극이 돈에 환장한 려객선의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때문에 일어난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그의 도주와 수색놀음을 연출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시체만 찾아놓고는 모든 책임을 죽은자에게 떠넘겨버리였으며 선장을 비롯한 몇몇 송사리들을 재판에 걸어 처벌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러한 오그랑수로도 민심의 항변을 누잦힐수 없게 되자 박근혜년은 괴뢰국무총리에게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워 사퇴놀음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다그어대며 괴뢰해양경찰을 해체해버려 해상범죄가 더욱 늘어나는 악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그야말로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는 격이였다.

이렇듯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신세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역도년은 참사가 빚어진 때로부터 며칠도 안되여 미국상전을 끌어들여놓고는 분위기에 맞지 않게 요염하고 화사한 웃음차려입고 아양을 떨며 돌아쳐 다시한번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박근혜와 그 패당의 추태가 얼마나 보기 민망스러웠으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철면피의 극치》,《서방에서라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울것이다.》고 비난을 퍼부었겠는가.

박근혜와 괴뢰보수패당은 유가족들과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요구해나선 《세월》호특별법제정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박근혜년은 《세월》호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세월》호특별법제정에 대해 약속하는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고서도 《실무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판단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조선 각계의 특별법제정요구를 한사코 외면해나섰다.

야당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대참사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혀내자면 유가족이 포함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며 특별검사임명권도 야당과 유가족측에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박근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가는 특별법이 채택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오금을 박았으며 역도년의 사당이였던 《새누리당》패거리들 역시 《특별검사임명과 시행에 관한 법률》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에만 줄수 있고 피해자측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못하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특별법제정에 훼방을 놓았다.

결국 대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침몰사건의 관련자처벌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할수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월》호대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괴뢰패당의 책동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사건건 가로막은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괴뢰보수패당은 특별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에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들을 박아넣고 이들을 통해 설립준비단의 활동을 수시로 감시하면서 그 정형을 보고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느니, 과도하게 예산을 정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시비질하면서 승인을 질질 끌다 못해 《세금도적집단》,《탐욕의 결정체》니 하는 악담까지 퍼쳐댔다.

《세월》호대참사 1년을 계기로 유가족들과 각계층의 《세월》호대참사진상규명투쟁이 고조되자 마지못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한 박근혜년과 보수패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요직들에 저들이 파견한 공무원들을 앉히고 유가족들이 임명한 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조사대상도 《정부》가 정한것으로 한정시켰다.

괴뢰패당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자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예산만 랑비하였다.》고 하면서 2년도 못되여 해산해버렸으며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와 야당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조사대상에서 청와대를 제외하는 대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흥정안을 내놓으면서 특대형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심히 우롱하였다.

더욱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하는것은 괴뢰패당이 《박사모》,《어버이련합》패거리들을 비롯한 우익보수깡패들을 내몰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가족들을 《시체장사군》으로 모독하는 집회까지 벌리도록 부추겨댄것이다.

박근혜패당의 사촉에 따라 극우보수깡거지들과 《탈북자》인간쓰레기들은 청와대의 자금줄인 《전경련》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고 거리로 몰려나와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제2의 광주폭동》,《선동군》 등으로 유가족들을 모독하였는가 하면 단식투쟁을 벌리는 시위자들앞에서 먹자판까지 벌려놓고 《제대로 단식했으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는가.》,《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연극》이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까지 해댔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괴뢰국회와 공공장소들에서 《〈세월〉호사고는 한꺼번에 300여명이 죽어 많아보이지만 년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꼭 불행인것만은 아니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것이다.》,《〈세월〉호문제에 진저리가 난다.》,《이제는 잊어야 한다.》며 남조선사회 각계의 진상규명요구마저 바다속에 빠져든 《세월》호처럼 수장해버리려고 발광하였다.

이것은 《세월》호희생자들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고 그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극악한 반인륜적악행이였으며 패륜패덕의 극치였다.

박근혜역도년과 괴뢰보수패당의 비렬한 망동으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은 한치도 전진할수 없었으며 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이 지속되여 유가족들의 단장의 아픔을 더해주고 분화구를 찾는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남조선민심의 분노를 더욱 격앙시켰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나보려는 최후발악

력사의 심판은 엄정하며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백성의 피눈물로 축배잔을 들이키며 희희락락하던 박근혜는 마침내 제년이 산처럼 쌓고쌓아온 만악의 무게에 스스로 눌리워 운명의 칠성판에 나자빠지게 되였다.

그러나 박근혜역도년은 남조선민심의 버림을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나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처박힌 신세가 된 오늘에 와서까지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를 한사코 부인하면서 상통을 쳐들고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파렴치한 행위는 《세월》호참사당일 제년의 7시간행적에 대해 별의별 요설을 다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세월의 락엽속에 덮어버리려고 발광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대형참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박근혜의 《의혹의 7시간》은 역도년의 목줄을 항시적으로 조여매군 하였으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역도년과 보수패당은 《세월》호대참사를 《정치적쟁점》으로 몰아가는것은 《위헌적발상》이라고 걸고들며 조사를 거부해나섰으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그 추악성에 대해 남조선잡지 《한겨레 21》은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박근혜와 청와대에 있어서 〈세월〉호참사는 무엇이였을가. 그 속내를 들여다볼수 있는 기록이 있다.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1월 1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낸 김영한의 업무수첩이다. 이 수첩을 보면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참사대응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거악〉으로 만드는데서 시작한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린다. 참사희생자유가족의 목소리도 묻었다. 특히 진실규명의 칼날이 청와대와 〈정부〉로 향할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립법, 감사, 수사를 통제관리한다. 참사당일 7시간동안 박근혜의 행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것은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근혜역도가 7시간행적을 영원히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발악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력사의 심판대에 오른 시각에조차 법률대리인단을 내세워 모순투성이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역도년은 답변서라는데서 참사가 발생한 당시 청와대 안보실 실장이였던 김장수와 7차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들자 서면보고라고 둘러치고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관저로 와서 《세월》호상황을 대면보고하였다고 밝혀놓고서는 그날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사외에 아무도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게 변명을 해댔다.

심지어 7시간이 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한데 대해 《세월》호안에 갇혀있더라도 특공대를 투입했다면 발견하고 구조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였다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여 만사람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박근혜역도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으면 괴뢰헌법재판소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하고 언론들도 《박근혜는 〈세월〉호참사당일의 7시간을 이제 더이상 숨겨서는 안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은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겠는가.

가관은 역도년이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생뚱같이 참사당일 《정부》종합청사에서의 《차량돌진》이니,《대통령에 대한 테로시도》니 하며 그것때문에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것처럼 동영상을 제출하는 놀음까지 벌린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차량이 청사내에 주차하고있던 어느 한 방송국의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웃음거리가 되고말았다.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박근혜에게 있어서 〈세월〉호 7시간은 족쇄》라고 하면서 진실을 토설하지 않으면 그 족쇄는 영원히 역도년을 따라다니며 숨통을 조일것이라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박근혜와 괴뢰보수패당은 《세월》호인양도 기를 쓰고 가로막았다.

《세월》호의 선체인양은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실종자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특히 참사당시 시신들이 나올 때마다 일루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자기 자식이 아니기를 바라던 피해자가족들이 나중에는 절망상태에 빠져 오히려 시신을 먼저 찾은 가족들을 부러워하는 눈물겨운 참상을 목격하면서 남조선사회 각계에서는 《세월》호선체인양을 요구하는 기운이 한껏 높아갔다.

그러나 괴뢰보수패당은 《선체인양과정에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할수 있다.》,《〈세월〉호를 인양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시신을 인양하면 〈정부〉책임론이 커진다.》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이에 대한 야당들과 사회 각계의 항의가 비발치자 박근혜와 괴뢰보수패당은 2015년 1월부터 《세월》호인양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느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인양을 적극 검토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민심의 반발을 누잦히려 하였다.

그러나 실지로는 인양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자금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질질 끌어왔으며 인양업체를 선정한 후에도 날씨와 바다물흐름 등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덧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렇듯 사연많은 《세월》호가 박근혜가 탄핵된 후 즉시 인양조치가 취해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으니 남조선인민들과 유가족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언론들,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온갖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난다.》고 하면서 사망자수습과 함께 침몰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금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괴뢰보수패당은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라는 태풍을 만났다.》고 하면서 《세월》호인양이 괴뢰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세월》호인양작업이 한창이던 때에 목포신항을 찾은 《바른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인 류승민이라는자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느니,《보수와 진보로 판가름할 리념문제가 아니》라느니 하고 나발을 불어댄것도, 괴뢰당국것들이 사고원인조사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떠들고있는것도 이러한 흉심의 발로이다.

한편 괴뢰보수패당은 인양된 《세월》호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세월》호사고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들의 대책위원회를 배제하고 괴뢰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이로부터 상업적판단이니 뭐니 하며 배를 륙지로 끌어올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체시켜 3년세월 찾지 못한 자식들을 심장속에 품고사는 가족들이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를 인정 못하겠다.》며 항의를 들이대고 롱성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마치 《세월》호선체를 인양한것이 저들의 공적인듯이 날조된 여론을 내돌리면서 이와 관련한 백서를 발표할것이라고 떠들면서도 사고원인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하여 《반쪽짜리 백서는 발표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비난이 물끓듯 하게 하고있다.

한편 괴뢰검찰은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며 특대형정치추문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세월》호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앞장에서 날뛴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괴뢰법원은 그 령장을 기각시켰다.

그 축소한 내용에 《세월》호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한 사실도 들어있다고 하니 역도년에게 붙어 온갖 전횡과 악정을 일삼던 패당들이 그대로 남아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고 민심의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광기를 부리며 최후발악하고있다는것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역도년은 구속되였지만 남조선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은 없으며 인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자주의 새 정치, 민주의 새 사회, 존엄있는 새 생활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만고역적 박근혜년과 그 공범집단인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떼죽음을 부르는 제2, 제3의 《세월》호대참사가 그칠새 없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불, 단결의 위력으로 박근혜역도년을 력사의 무덤에 처박은 그 열정, 그 용기를 더욱 세차게 분출시켜 역도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인민의 원쑤, 력사의 반동들인 보수패당을 쓸어버리며 자신들의 꿈과 리상이 성취되는 참된 새세상, 광활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박근혜역도년과 괴뢰보수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세월》호대참사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특대형참극을 빚어낸 희세의 살인악마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17일

평 양

ㄱ-71060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